

광주시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국무총리표창'

수요자 중심 혁신적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통합지원시스템 '광주 늘봄지니' 호평...전국 1위

광주시교육청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1위를 달성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시·도교육청,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평가는 △민원행정절차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민족도 등 5개 항목의

실적을 토대로 진행하며, 점수에 따라 가~마 등급이 부여된다.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부문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29일 세종시 민원동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중대 범죄피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치안·행정·NGO가 함께하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해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또 학생, 학부모가 늘봄학교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AI 챗봇 '광주 늘봄지니'를 도입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 혁신적 민원 서비스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최승복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민원 현장에서 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시교육청은 29일 세종시 민원동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최근 중국 베이징 국제주둥대대에서 열린 중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세계호남향우회와 1100만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 약정을 체결했다.



재경여수향우회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회장 이·취임식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약 2200만원 상당의 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을 체결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오른쪽)은 최근 광주시체육회관 회의실에서 대한스쿼시연맹 박세준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힘 보탠다”

재경여수향우회, 2200만원 입장권 구매 세계호남향우회도 1100만원 약정 체결

재경여수향우회와 세계호남향우회가 오는 9월 개막하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입장권 구매와 홍보 활동에 동참했다. 29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재경여수향우회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회장 이·취임식에서 박람회조직위원회와 약 2200만원 상당의 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정현구 조직위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재경여수향우회 30대 서형곤 회장, 31대 배규호 회장과 향우회원 300

여명이 참석해 박람회 성공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향우회는 입장권 구매에 그치지 않고 회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활동과 단체 관람 추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박람회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경여수향우회 관계자는 “고향을 떠나 있어도 여수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다”며 “섬박람회가 여수의 가치와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향우들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계호남향우회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중국

북경 국제주둥대대에서 열린 '중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세계호남향우회와 1100만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이동수 세계호남향우회장과 손재민 중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 중국 내 13개 지역 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박람회 성공 의지를 다졌다. 앞서 1월에는 광주전남도민회가 서울에서 5000매 구매를 약정하며 참여 분위기를 이끌었고, 2월에는 대전세종충남향우회가 사전 구매에 동참했다. 이어 3월에는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미주호남향우회 총연합회가 참여하는 등 출향민들의 지원이 해외로 확산하는 추세다. 이동수 회장은 “전 세계 700만 호남 향

우들은 고향 발전을 늘 염원하고 있다”며 “섬박람회가 여수의 아름다움과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향우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와 방문객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현구 조직위원장 권한대행은 “재경여수향우회의 뜻깊은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출향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박람회 성공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말까지 61일간 여수 돌산진모지구와 여수세계박람회장, 개도 및 금오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수=송원근 기자 swg318@gwangnam.co.kr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스쿼시 발전 감사패 광주시장배 전국대회 성공 개최 등 기여 인정 “스쿼시 경쟁력 강화·활성화 위해 지속 지원”

전갑수 광주시체육회 회장이 대한민국 스쿼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7일 광주시체육회관 회의실에서 전갑수 시체육회장이 대한스쿼시연맹 박세준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대한스쿼시연맹 제4차 이사회에 앞서 진행됐으며, 박세준 대한스쿼시연맹 회장을 비롯해 임효택·하호성·장현기·정창우·이재훈 부회장과 전상완 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감사패는 전 회장이 취임 이후 광주시 스쿼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장배 전국 실업 스쿼시대회의 완성도를 높이며 성공적으로 개최를 이끈

점과 대한민국 스쿼시 경쟁력 강화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번 수상은 광주가 스쿼시 중심지로 위상을 높여가는 가운데 지역 체육 발전과 종목 육성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박세준 대한스쿼시연맹 회장은 “전국대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스쿼시 발전을 위한 애정과 헌신은 체육계 전반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국내를 대표하는 전국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쿼시 경쟁력 강화와 저변 확대, 종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희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18민주묘지 정화활동

광주보호관찰소는 29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국립 5·18민주묘역 정화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단순한 노동 위주의 봉사에서 벗어나, 민주화운동의 성지를 직접 가꾸며 법질서의 소중함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장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은 참배단 현화를 통해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묘역 내 잡초 제거와 묘비 닦기, 주변 환경 정비 등 정화활동에 전념했다. 박정욱 사회봉사 담당관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돕는 의미 있는 봉사 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남대 총동창회, 새병원 건립 후원금 6000만원 쾌척

류혜경 회장·오형석 이사장 등 회장단 4명 특별기금 전달

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전남대 총동창회와 '새병원 벽돌쌓기 특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전남대 총동창회장인 오형석, 총 6000만원의 발전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류혜경 총동창회장(서광병원 병원장·학교법인 인성학원 이사장) 3000만원, 오형석 총동창회 이사장(탐솔그룹 회장) 2000만원, 최희동 총동창회 수석상임부회장(광주공고장학재단 이사장) 500만원, 김재성 총동창회 수석상임부회장(한남유리 대표) 500만원 기탁으로 새병원 건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신 병원장, 윤경철 진료부원장, 김광석 공공부원장, 주성필 기획조정실장, 한재영 대외협력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박상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장과 이완식 화순전남대병원장도 함께 자리해 동문들의 소중한 나눔에 감사사를 표



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전남대 총동창회와 '새병원 벽돌쌓기 특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했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의료 현장의 전문기로서 전남대병원의 새병원 건립이 지역 보건으로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절실한지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모교 병원이 지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동문들의 마음이 새병원의 든든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신 병원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미래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 큰 결단

을 내려주시 류혜경 회장님과 회장단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며 “보내주시 소중한 기금은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질 최첨단 새병원을 건립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남대 총동창회가 추진 중인 '새병원 벽돌쌓기' 캠페인은 노후화 된 병원 시설을 현대화하고 스마트 의료 시스템을 갖춘 새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이산희 기자 goback@gwangnam.co.kr



목포시는 최근 목포청년센터 누리에서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퍼스널컬러 브랜딩'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사진제공=목포시청

목포시 '퍼스널컬러 브랜딩' 프로그램 성료

목포시는 최근 목포청년센터 누리에서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퍼스널컬러 브랜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신만의 개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기획됐다. 교육은 퍼스널컬러 이론과 1대1 맞춤형 컬러 진단, 이미지 메이킹, 실전 활용법 등으로 구성해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해당 강좌는 모집 시작 하루 만에 마감돼 청년층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교육 당일은 이론과 실습이 균형 있게 진행돼 참여자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참여 청년들은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을 찾으며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됐다”며 “청년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목포청년센터 누리 활성화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됐다”고 말했다. 목포=이은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